

시신해부실습 필요성에 대한 설문연구: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 교수의 관점

김 덕 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2015년 5월 20일 접수, 2015년 6월 4일 수정접수, 2015년 6월 9일 게재승인, Published Online 30 June 2015)

간추림 :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안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활동을 하게 된다. 기초간호과목들은 간호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며 간호 전공과목 교육의 기초가 된다. 해부학은 의학과와 의과과정인 간호대학에 그대로 반영되어 간호학적 특성에 잘 맞지 않으며 고학년에서의 간호 전공과목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하여 해부학 수업개선에 기초가 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실험 연구이다. 해부학을 배운 간호대학생들과 간호대학에서 기초간호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해부학 교육과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시신해부실습이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대학생들은 81.6%이었고 교수들은 95.5%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은 사람몸 구조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임상에 도움이 되고 학과 특성 상 시신해부실습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간호대학 기초간호과목 교수들은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시신해부실습 시 꼭 관찰해야 할 것으로 장기와 신경계통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예비실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 특성에 맞는 해부학 수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더 수집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른 간호대학들과 공유하여 간호대학생들 해부학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한다.

찾아보기 낱말 : 시신해부실습, 간호대학, 해부학, 설문조사

서 론

의학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의료인과 관련종사자(allied health personnel) 모두에게 사람몸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구조적, 기능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1,2]. 특히 의료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3] 우리 몸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지식을 잘 알아야 하며 이러한 지식은 학부과정 전공기초 교과목 특히 해부학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의료법 상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 분류된다[4]. 방송매체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의 건강과 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간호대학/간호학과 학생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 -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 은 특히 사람몸과 해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시신해부실습에 대한 관심도 많다[1]. 해부학 교육에서 시신해부실습은 학생들에게 죽음을 현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생물학적 변이, 병적 변화와 의학의 기본 언어를 가르치며 사람몸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5].

간호대학에서 전공기초과목 특히 해부학은 의과대학에서 기존에 강의되고 있던 교과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본 연구는 2014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신진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교신저자 : 김덕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자우편 : deogimk@kmu.ac.kr

많은 학교에서 의과대학 교수나 해부학을 전공하거나 혹은 전공하지 않은 시간강사가 강의하고 있다 [6]. 간호대학에서는 계통해부학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실습보다는 이론에 치중되어 있고 실습을 하는 경우 그림책이나 플라스틱 모형을 이용하거나 동물실험으로 대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과대학과 같이 있는 몇몇 간호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생이 시신해부실습 혹은 해부학 수업이 끝난 후 그 시신을 의과대학 교수의 지도하에 관찰하는 시신해부실습을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 의과대학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실시하는 시신연수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사람몸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호학적 특성에 맞는 해부학 교육과정과 시신해부실습을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예비실험 연구이다.

재료 및 방법

설문조사는 두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 집단은 D시 소재 K 대학교 간호대학생으로 설문조사 직전 해부학 수업을 수강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른 집단은 간호대학에서 해부학을 비롯한 기초간호과목을 교육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집단 대상자들 모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 연구자가 해부학의 학기말 시험 후에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초간호과목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간호대학 교수들을 위한 시신연수회 후 연수회에 참여한 30명의 교수들에게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밀보장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으며 설문작성 후 준비된 상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설문지는 142부 모두 회수되었으며 설문 문항의 답변이 일부 누락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대학 교수들의 설문지는 무응답 7부를 제외한 23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답변이 일부 누락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 특성 4개, 해부학 수업과 관련된 17개 항목으로 설문 항목은 해부학 수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만족

도에 대한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five-level Likert scale) 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 문항이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총 30개 항목으로 일반적 특성이 6개 항목, 해부학 수업과 관련된 항목이 11개, 시신해부실습 필요성이 13개 항목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SPSS (version 20, IBM, USA)를 사용하여 빈도와 평균값, 독립표본 T 검정 (independent t-test), 분산 분석 (ANOVA)하였다.

결 과

간호대학생은 여학생 (87.9%)이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20세가 가장 많았다. 생물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학생이 약 93%이었으며 해부학은 대학 진학 후 처음 배웠다고 대답한 수가 141명 중 134명이었다. 가족이나 주위 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estionnaire respondents for nursing studen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x	Male	17	12.1
	Female	124	87.9
		141	100.0
Age (year)	19	4	2.8
	20	114	81.0
	21	16	11.3
	22	3	2.1
	23	3	2.1
	26	1	0.7
		141	100.0
I learned biology in high school.	Yes	131	92.9
	No	10	7.1
		141	100.0
I studied Anatomy before learning in college.	Yes	7	5.0
	No	134	95.0
		141	100.0
One of my family or friend learned Anatomy.	Yes (Family)	58 (25)	41.1 (17.7)
	(Friend)	(30)	(21.3)
	(Both of them)	(1)	(0.7)
	(No answer)	(2)	(1.4)
	No	83	58.9
		141	100.0
Cadaveric dissection is necessary.	Yes	115	81.6
	No	20	14.2
	No answer	6	4.2
		141	100.0

Table 2.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for Anatomy education*.
(N=141)

Category	Mean $\pm$ S.D.
I am satisfied with the anatomy curriculum.	3.98 $\pm$ 0.77
I am satisfied with the anatomical practice time.	3.48 $\pm$ 0.94
I am interested in the human body after learning anatomy.	4.14 $\pm$ 0.81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anatomy lecture. [§]	3.45 $\pm$ 0.92
The anatomy lecture wa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4.10 $\pm$ 0.68
The anatomy practice wa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4.07 $\pm$ 0.72
The human body model wa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4.09 $\pm$ 0.70
The video was useful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4.13 $\pm$ 0.70
The short test was useful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3.49 $\pm$ 0.86
The practice test was useful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body.	3.44 $\pm$ 0.96

*Questionnaire items were used as a typical five-level Likert item.

[§]This item was meant to negative answer when high score.

구들 중 해부학을 배운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배운 사람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58명으로 가족과 친구 모두 해부학을 배운 사람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명 있었다 (Table 1). 해부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거의 모든 항목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해부학 수업으로 사람몸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모형이나 동영상에 사람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해부 실습시간과 퀴즈, 그리고 실습시험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Table 2). 해부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고등학교 시절 생물을 배운 학생이나 해부학을 대학 입학 전에 접한 학생, 주위 사람 중 해부학을 배운 사람이 있는 학생들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슷하였다 ($P>0.05$). 해부학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을 묻는 질문에서 교과서가 가장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이 강의, 모형 순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0.803$, $P=0.552$). 강의도구에 따른 해부학 수업 만족도의 사후분석에서 강의, 교과서, 모형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도구에 따른 사람몸에 대한 이해정도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F=0.263$, $P=0.852$) 사후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시신해부실습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주위 사람 중 해부학을 배운 사람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3). 생물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나 해부학을 이미 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것은 두 집단의 표본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Table 3.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for Anatomy cla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I learned biology in high school.			I studied Anatomy before learning in college.			One of my family or friend learned Anatomy.			Which one is the best for you at Anatomy lesson?				
			t			t			p	Lecture ^a (N = 33)	Textbook ^b (N = 6)	Model ^c (N = 67)	F	p
	t	p		t	p		t	p						
Satisfaction										Mean $\pm$ S.D.	Mean $\pm$ S.D.	Mean $\pm$ S.D.		
Anatomy curriculum	0.80	0.424		-1.143	0.294		0.727	0.469		3.83 $\pm$ 0.74	4.00 $\pm$ 0.89	3.65 $\pm$ 0.69	0.703	0.552
Anatomical practice time	0.111	0.912		-0.557	0.578		-0.502	0.616						
I interested in human body after the Anatomy lecture.	-0.316	0.753		-0.468	0.641		0.038	0.970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anatomy lecture.	0.765	0.446		2.681	0.031		0.905	0.368						
Useful understanding of human body														
Anatomy lecture	1.229	0.251		-1.557	0.122		-0.703	0.484						
Anatomy practice	0.318	0.751		-0.820	0.414		-0.029	0.977						
Human body model	-0.099	0.921		-0.904	0.368		0.757	0.451						
Short test	1.381	0.170		-0.652	0.516		-1.752	0.082						
Practice test	0.820	0.434		-1.983	0.083		-1.955	0.053		3.92 $\pm$ 0.68	4.03 $\pm$ 62	3.85 $\pm$ 0.49	0.263	0.852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4.856	0.000		-4.850	0.000		0.411	0.682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questionnaire respondents for professor in nursing college.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x	Male	2	9.1
	Female	20	90.9
		22	100.0
Age (year)	30~40 years old	3	13.6
	41~50	13	59.1
	51~60	6	27.3
		22	100.0
Working at University	Three-year of curriculum	7	31.8
	Four-year of curriculum	15	68.2
		22	100.0
With medical school	Yes	5	22.7
	No	16	72.8
	No answer*	1	4.5
		22	100.0
Location of university	Seoul or Gyeonggi-do	3	13.6
	Gangwon-do	2	9.2
	Chungcheongbuk-do	5	22.8
	Chungcheongnam-do include Daejeon	1	4.5
	Jeollabuk-do	1	4.5
	Jeollanam-do include Gwangju	3	13.6
	Gyeongsangbuk-do include Daegu	5	22.8
	Gyeongsangnam-do include Busan	1	4.5
	Jeju-do	1	4.5
		22	100.0
Major of final degree	Nursing	14	63.7
	Basic Nursing Science	3	13.6
	Others	5	22.7
		22	100.0

*Respondent checked to work at four-year of curriculum in university.

설문에 응답한 22명의 기초간호과목 교수들 중 2명은 남자였고 나이는 41세에서 50세 사이가 59.1%로 가장 많았다. 시신연수회에 참석한 교수들 중 68.2%가 4년제 대학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중 5명은 의과대학이 같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한 명도 4년제 대학에 근무한다고 하였다.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는 서울 경기권에서 제주도까지 다양하였고 최종학위 전공은 간호학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컴퓨터 공학과 생물화학공학을 전공한 교수도 있었다 (Table 4).

해부학 실습에 대한 질문에서 22개 학교 중 3개 학교가 실습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실습한다고 대답하였다. 시신해부실습을 하고 있다고 답한 4개 학교 모두 의과대학이 없는 4년제 대학으로 다른 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시신연수회에 학생들을 참여시켰다고 답하였다. 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간호대학은 3곳이 있었

Table 5. Professors in nursing college think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It is necessary.	Yes	21	95.5
	No	1	4.5
		22	100.0
Assignment of cadaveric dissection time in curriculum	Regular course	3	13.6
	Short-term course	18	81.9
	Others	1	4.5
		22	100.0
Hour a week	2 hours	7	31.8
	3 hours	4	18.2
	4 hours	2	9.1
	Others	3	13.6
	No answer	6	27.3
		22	100.0
Curriculum of cadaveric dissection	Observation	17	77.4
	Like medical students' curriculum	3	13.6
	Others	1	4.5
	No answer	1	4.5
		22	100.0
Who is teaching to nursing student?	Professor in medical college	9	40.9
	Professor in nursing college	—	—
	Professor teaches basic science in nursing school	9	40.9
	Gross anatomy major	3	13.7
	No answer	1	4.5
		22	100.0
How many days does it practice properly if cadaveric dissection form a short-term course?	1 day	10	45.5
	2 days	5	22.7
	3 days	7	31.8
	4 days	—	—
	5 days	—	—
		22	100.0

*Cadaveric dissection means in here that is just observation of cadavers.

으나 모두 시신해부실습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1명 (95.5%)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정규과정이 아닌 시신연수회와 같이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81.8%) 좋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만일 시신해부실습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한다면 실습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31.8%)이 적절하고 간호대학생들이 시신을 관찰 (77.3%)하는 정도의 과정이 좋을 것 같으며 간호대학생들의 지도는 의과대학 교수 (40.9%)나 기초간호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40.9%)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시신해부실습이 정규과정이 아닌 단기과정으로 편성될 경우 교육 기간은 1일 과정 (45.5%), 3일 과정 (31.8%) 순이었다 (Table 5).

고 찰

간호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근거가 기반되어야 하며 이것은 학부과정에서 전공기초과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초지식이다 [1].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간호들은 환자의 안위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술기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몸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전공기초과목 중 해부학은 사람몸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간호 전공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중요한 교과목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에서는 전공기초과목들을 의학과로부터 그대로 가져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의하였고 이러한 교육은 간호학적 특성에 맞지 않아 간호 전공과목 수업 시 어려움이 있으며 간호현장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5].

간호대학에서 기초과학과목은 1학년 또는 2학년에 배우는 교과과정으로 이 과목은 고학년에 배우는 전공필수과목을 비롯한 간호 교육과정의 성공적 이수에 결정적 요인이며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 간호교육에서 전공기초과목의 교과과정을 간호학적 특성에 기초한 전공기초교육으로 수정개발하기 위해 많은 교수들이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과목 명칭을 통일하거나 교육 내용을 통합하는 등 교과과정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2,6]. Yoo 등 [2]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초간호과목의 지식수준과 임상 적용 수준을 설문 조사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수업시간을 증가하고 학점수를 높여 운영하는 방법과 심도 있는 학습과 사전학습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한 22개 간호대학에서의 해부학은 학교마다 배당학점과 교과목 구분이 서로 다르며 실습시간 배정도 다르며 심지어 실습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Table 6). 설문에 응답한 22명의 교수들 중 최종학위 전공도 기초간호학보다는 간호학이 더 많았으며 심지어 공학을 전공한 교수도 있었다. 다른 전공기초과목 중 하나인 생리학에 비해 해부학은 전임교원보다 시간강사가 강의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전임교원일 경우에도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는 거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시신해부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간호대학생들은 ‘장기의 실질적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51.5%)’, ‘임상에 도움 (17.5%)’, ‘학과특성 (14.6%)’, ‘책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11.7%)’, ‘이론으로 부족하다 (2.9%)’ 순이었고 기타로 ‘사람몸에 대한 흥미 향상’과 ‘호기심’이 각각 한 명씩 있었다. 간호대학 교수들은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몸을 직접 관찰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력을 향상시켜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설문에서 한 교수는 시신해부실습을

Table 6. Characteristics of Anatomy course in Nursing College by questionnair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Course category	Mandatory major	2	9.1
	Select major	—	—
	Basic major	20	90.9
	Liberal arts	—	—
		22	100.0
Credits	2	11	50.0
	3	11	50.0
	Others	—	—
		22	100.0
Grade	First	17	77.3
	Second	4	18.2
	Third	—	—
	Fourth	—	—
	Others*	1	4.5
		22	100.0
Anatomy practice hours per week	2 hours	5	22.7
	3 hours	1	4.5
	None	12	54.6
	Others [§]	4	18.2
		22	100.0
Approaches	Systemic	19	86.4
	Regional	—	—
	Others	3	13.6
		22	100.0
Language of textbook	Korean	21	95.5
	English	1	4.5
		22	100.0
Anatomical term	Korean	4	18.2
	Chinese	—	—
	English	2	9.1
	Others [†]	15	68.2
	No answer	1	4.5
		22	100.0

*That was operated 2 semesters, 1st grade 2nd semester and 2nd grade 1st semester.

[§]Anatomy practice was assigned 1 hour per week.

[†]They are using both Korean and English term in lecture.

통해 학생들에게 사람몸의 신비와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시신연수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연수회 후 학습동기부여와 자부심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공기초과목 교수들이 생각하는 시신해부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꼭 관찰해야 할 것으로 배 안과 가슴 안 장기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뇌와 척수를 포함한 신경계통이었다. 기초과학 담당교수로서 시신해부실습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시신연수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한 22명 교수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신연수회에서 꼭 관찰해야 하고 관찰하고 싶은 것으로 신경계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장

기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추후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신해부실습 혹은 시신연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기초과목 교수 본인들이 시신연수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므로 교수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과 기초과학 담당교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계점이 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해부학 수업의 개선 및 발전과 간호대학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한 시신해부실습을 추진할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 설문에 응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신해부실습을 시행한 후 그들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하여 시신실습 전과 후의 학생들의 반응을 비교할 예정이며 계속적인 연구와 해부학 수업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간호학적 특성에 맞는 해부학 수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다른 간호대학 교수들과 공유하여 전국 간호대학에서의 해부학 수업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간호과목의 개선을 위해 기초간호학회와 많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9]. 간호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 시신해부실습의 필요성과 요구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비한 것은 간호학과 해부학을 모두 전공한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간호대학에 알맞은 해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에서의 해부학 교육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신해부실습 등을 통해 현재 간호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 해부학 비전공자 교수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학회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함을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이 연구가 간호대학생의 시신해부실습을 포함한 해부학 교육에 대한 개선안이나 방향성을 지금 당장 제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연구가 해부학 교육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Kim WS. The effect of observ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Korean J Phys Anthropol.* 2012; 25:77-86.
2. Yoo JS, Ahn JA, Yeo KS, Chu SH. The study to reorganize the course of basic nursing science in a college of nursing. *J Korean Biol Nurs Sci.* 2008; 10:162-9.
3.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Basic Korean Dictionary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Service Act [Internet]. Available from: <http://law.go.kr/lInfoP.do?lsiSeq=167740&efYd=20150128#0000>
5. Older J. Anatomy: A must for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Surg J R Coll Surg Edinb Irel.* 2004; 2:79-90.
6. Choe MA. Perspectives on bionursing science. *Perspectives Nurs Sci.* 2012; 9:61-70.
7. Wong J, Wong S. Contribution of basic sciences to academic success in nursing education. *Int J Nurs Studies.* 1998; 36: 345-54.
8. Fredricks KT, Wegner WM. Clinical relevance of anatomy and physiology: A senior/freshman mentoring experience. *Nurse Educ.* 2003; 28:197-9.
9.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bionursing.or.kr/v>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 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Deo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 Nursing students will work to promote the health of patients as a nurse after graduation. Basic nursing science is to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ursing activity and to form the basis of nursing mandatory major. Anatomy is a curriculum of medical college, for that reason, it does not fit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nursing science, and it is difficult to study mandatory major. This research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be improved anatomy curriculum for nursing students using questionnaire about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anatomy course and professor taught basic nursing science in nursing college.

Eighty-one percentage of nursing student and 95.5% in professor answered to need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 Nursing students answered that it sh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about human body and nursing activity. Professors replied to acquire knowledge of human body and be of help to learn. They filled in internal organs and nervous system that have to observe during cadaveric dissec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anatomy curriculum in nursing college.

Keywords: Cadaveric dissection, Nursing college, Anatomy, Questionnaire

